

# 대도시 주공혼재지역의 영세제조업의 존립기반: 대구시 노원동을 사례로

이철우\* · 박상민\*\*

본 연구는 대구시의 대표적인 주공혼재지역인 북구 노원1·2가동을 사례로 산업지역사회의 관점에서 주공혼재지역으로의 형성과정과 영세제조업체의 존립기반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지역은 1993년 준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계기로 영세 제조업체 및 관련 서비스업과 주택이 혼재하고, 생산활동과 생활활동이 공존하는 전형적인 산업지역사회로 급속하게 변모하였다. 산업지역사회 기본으로서의 영세제조업체의 핵심적 존립기반은 중소 생산자본을 중심으로 한 생산과정상의 수평적이고 역내 통합적 네트워크 생산체제와 그 보완장치로서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산업환경으로 집약된다.

**주요어 :** 산업지역사회, 산업집적, 영세업체 존립양식, 산업환경, 네트워크생산체제, 수평적 하청

## 1. 서론

도시내 주공혼재지역은 대도시의 급격한 발전속에서 점차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도심의 지가 상승과 공해문제 등으로 생산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으로서의 발전방향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에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關滿博, 1990).

주공혼재지역은 일정 지역에 주거용도와 공업용도의 토지가 일정 비율로 혼재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문태현, 1988, 4). 그러나 주공혼재지역은 단순히 주택과 공장의 혼재지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어느 정도의 밀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미개발지역에 주택과 다른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것은 의미가 없고, 기존 시가지내에서 또는 어느 정도 시가지화가 진행된 곳에서 주택과 공장이 혼합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주거기능과 생산기능이 공존하고 있다고 해도 대규모 공장과 주택단지가

같이 있는 것은 주공혼재지역이라고 할 수 없다. 즉,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과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주공혼재지역이라 할 수 있다(三村浩史, 1978). 關滿博(1990)은 주공혼재지역의 패턴을 형성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네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패턴은 주민 스스로가 주택의 일부를 공장으로 이용하는 패턴이다. 이러한 패턴에서는 일반적으로 높은 기술수준을 필요로 하는 그 지역의 일용소비재 중심의 생업적 성격이 강한 공업이 집적하고 있다. 이 패턴은 생활의 장으로서의 주공혼재지역이며 주공조화의 상황을 창출하여 상대적으로 생활환경이 양호하다. 둘째 패턴은 지역의 중핵적인 공장에서 기술을 습득하여 그 후에 독립하여 창업할 경우에 공장주와 주택을 가까운 지역에 구함으로써 지역 전체가 주공혼재화된 패턴이다. 이 경우는 기업이 정신이 투철한 독립창업자의 사업의욕을 기초로 활력있는 주공혼재지역을 이루고 있다. 특히 이 경우에는 주공혼재, 직주일체에 양호한 접근성이 사업전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상의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부교수

\*\* 안양외국어고등학교 교사

두가지 패턴이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주공혼재지역 형성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양자가 상당히 혼재되어 있다. 셋째 패턴은 현재 주공혼재문제의 초점이 되고 있는 일정 규모의 공장부지에 주택, 특히 대규모 아파트의 건립으로 기존의 공장과 신규 주택과의 혼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유형이다. 이 패턴의 전형은 중공업지역의 공업단지 내에 주택, 아파트가 침입함으로써 형성된 지역이다. 넷째 패턴은 물리적, 혹은 표면적인 주공혼재 상황에 큰 변화는 없으나, 공장의 내용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서 새로운 주공혼재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패턴이다.

주공혼재지역의 대부분은 공장이 입지해 있던 지역에 주택이 침입, 발생하거나 주택지에 공장이 설립되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공혼재 지역은 교통혼잡, 환경불량, 주택부족 및 상태불량 등 많은 도시문제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독특한 지역문화를 형성하고 있으며, 대도시의 균형형 발전이라는 의미에서도 주공혼재지역 나름의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역사적으로 대도시의 주공혼재지역에 형성되어온 독특한 공업집적은 오늘날 도시산업의 구조조정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산업구조조정에서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이 신규 고용창출의 견인차가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 시내에 집적한 소기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 이러한 도 시내 소기업의 집중과 집적을 설명하려는 시도로는 인큐베이터 가설, 국지적 노동시장이론, 산업연계론, 거래행태론, 산업지구론 등이 있다(강우원, 1995). 이러한 시도들은 산업의 입지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독립된 경제활동 그 자체만을 가지고 설명하기보다는 경제행위의 사회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관계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도 '지리적 지역', '사회적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특정적인 이해관계, 관심사'를 공유하는 주공혼재지역을 하나의 산업지역사회(industrial community)라는 시각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을 사례로 주공혼재지역에 입지한 영세 제조업의 존립기반을 고찰함으로써 대도시 영세제조업 집적지역의 내부적 작동메카니즘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이용된 주된 자료는 지역 현황과 토지이용에 관한 동사무소 자체 전산자료와 1998년 7월 1일부터 15일, 그리고 12월 19일에서 21일까지 실시된 2차에 걸친 설문 및 면담 조사 결과이다. 분석대상 업체는 총 84개 업체이며 그 중에서 제조업체는 70개 업체이다.

## 2. 연구지역의 개관 및 주공혼재지역으로의 형성과정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1·2가동은 1974년 이전에는 주거지역이었으나, 1974년 제3차 도시재정비계획에 의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제3공업단지, 침산공단과 함께 도시근교 공업지역으로 발전해 왔다. 현재 노원1·2가동은 제3공단<sup>1)</sup>을 제외한 노원3가 1·2동, 침산1·3동과 함께 주거, 상업, 공업기능이 혼재되어 있으며, 1993년에 다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었다.

연구지역은 제3공단과 인접한 제3순환선내에 위치한 노원2가동 중에서 주거, 상업, 공업기능이 전형적으로 혼재된 용도지역상 준주거지역<sup>2)</sup>으로 설정된 일부 지역이다(그림 1). 현재 노원1·2가동 전체 면적은 0.70km<sup>2</sup>로써, 대구광역시 북구 면적의 0.73%를 차지하고 있다. 총 3,647세대이며 인구는 11,727명(남자 6,138명, 여자 5,589명)으로 남초지역이며, 인구밀도는 16,753명/km<sup>2</sup>로 북구 전체 평균인 4,136명에 비해서 매우 높은 지역이다<sup>3)</sup>. 그리고 공동주택 비율은 20.27%로써, 북구 전체의 55.79%, 대구광역시 전체의 51.70%보다 상당히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이 지역이 1974년부터 1993년까지 20년동안 준공업지역이었기 때문에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에 많은 제약을 받았기 때문이다. 연구지역은 노원3가 2동의 3공단과 인접한 특성 때문에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노원2가동도 3공단의 확대된 범위로 사용되고 있다<sup>4)</sup>. 따라서 현 지역의 이미지는 주거지역이라는 이미지보다는 넓은 의미에서 3공단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우세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기계금속업종의 성격상 소음과 분진 등으로 생활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연구지역의 총 세대수는 1,479세대이며, 인구는 4,901명이다. 남초지역이며, 세대당 평균 인구수

<그림 1> 연구지역의 토지이용

는 3.3인이다.

연구지역의 토지이용을 살펴보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거용 31.7%, 주상복합용 30.0%, 공업용 24.7%를 차지하고 있다(표 1). 주상복합용 토지가 공업용 토지보다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주상복합용 건물들이 상업용뿐만 아니라, 공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주거용의 경우 노원2가동 일반주거지역과 비교해 볼 때, 연구지역이 단독주택의 비율이 약 10% 정도 높다. 토지이용의 혼합적 이용은 블록간 혼합보다는 블록내 혼합의 형태가 중심이며, 블록의 안쪽에는 저층의 단독주

택이 밀집된 주거용으로 주로 이용되며, 도로변의 건물은 주거·공업·상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도로에 면한 건물은 토지대장상의 용도와는 달리 주로 1층은 공업과 상업용으로, 그리고 2·3층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상·공 복합건물이다.

각 지번의 용도별 평균 대지면적을 살펴보면 주거용이 126m<sup>2</sup>, 상업업무용이 379m<sup>2</sup>, 주상복합용이 363m<sup>2</sup>, 공업용이 417m<sup>2</sup>이다. 주거용 평균면적이 타 용도의 절반이하에도 못 미치는 것은 이 지역이 용도지역상 준공업지역이었을 당시, 200m<sup>2</sup>이하의 주택은 중축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현재

<표 1> 연구지역의 토지이용별 구성

토지이용		연구지역(노원2가동 준주거지역)		노원2가동(일반주거지역)	
		면적(m <sup>2</sup> )	%	면적(m <sup>2</sup> )	%
주거	단독	39,336	21.7	28,721	10.1
	비단독	18,041	10.0	19,847	7.0
	소계	57,379	31.7	48,568	17.1
상업업무		24,281	13.4	29,784	24.6
주상복합		54,419	30.0	28,342	23.4
공업		44,649	24.7	14,449	11.9
공공용지		401	0.2	21	0.0
합계		181,129	100.0	121,164	100.0

자료 : 노원 1·2가동 자체 전산자료를 필자 정리 재구성(1998년 4월 29일 현재).

와 같은 건물년수가 오래된 저층의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노원동은 대기오염 부문에서 전국 최악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미지 외에 소음과 분진 등 극히 나쁜 생활조건에 있다.

다음은 연구지역의 주공혼재의 경관이 형성된 배경과 현재 불리한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한 주민과 인터뷰한 내용이다.

필자 : 74년도에 칠곡에서 노원동으로 이사오셨는데 그 당시에 이 지역 사정은 어떠했습니까?

李씨<sup>5)</sup> : 그 때 3공단이 한참 발전할 때 아이기. 그 때 큰길 건너 3공단에 공장 많이 짓고 그랬지. 이쪽 노원2가동 쪽으로는 그때부터 여기가 준공단카면서 쪼그만 터는 집을 못졌다고. 길 저쪽으로는 3공단으로 되어 있었고, 길 요쪽으로는 준공단지역이었따고.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육십네평<sup>6)</sup>인가가 넘어야만 허가 내줬지 그렇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났다고. 그래 나는 특혜해야 스물아홉평 가지고 있는데, 이놈의 허가를 그때 안 내줬으니, 이제까지 있다가 지었으니 돈이 얼마나 더 들었겠나. 그 당시에 내 허가내 집 지었으면 평당 20만원 주면 지을 꺼를 요새는 이놈의 꺼 200만원 쥘서 지어가지고 뭐하노 이말이다. 그래도 정부에서는 그래 이 서민들한테 손해준거를 하나라도 생각하나? 안하제?

필자 : 현재 이 지역에 공장이 있어서 불편한 점이 많으실텐데,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李씨 : 불편한거야 많이 있지. 시끄럽고. 그러나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시끄럽다고 쫓아낼 수도 없는거 아이기.

필자 : 여기 이 지역에 기계, 금속 업종의 아주 조그만 공장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언제부터 이 소규모 영세공장들이 생겨났다고 생각하시는지요?

李씨 : 고기 생긴지가 처음부터 생긴지 내가 알기로는 한 10년, 11년 그전부터 지금 있는데다가 그 가게 같은거 헐어뿌고 가내공업 맨치로 쪼그만 기계 한대 들라 놓고 한 것이 차차 커진 것이 이래됐다 이말이지.

이상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1993년 이전에, 본 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을 당시에, 62평 미만의 대지를 소유한 서민들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점과 저층의 단독주택이 많이 밀집된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리고 토지이용의 혼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문제에 '시끄럽지만, 어쩔수 없지 않은가'라는 답변은 주공혼재지역에서 소규모 영세공장으로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주민들이 비교적 관용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그 주민들의 사회적 연결망과 이웃연결망이 부분적으로 현 지역에서 소규모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나아

가서 상업과 서비스업의 자영업자의 경우도 영세공장과 그 종사자들과 공생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50대의 주민 徐씨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필자 : 주변에 기계, 금속 등의 소음을 유발하는 공장들이 많이 밀집해 있어서 많은 불편이 있을거라 생각되는데 진정이라든지 민원을 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徐씨 : 주민들 여론이 반영이 되면 좋은데 반영될 일도 없고. .... 우리가 떠나라 칸다고 떠나는 것도 아니고. 또 있으라칸다고 있을 것도 아니고. ... 가 봤으면 좋겠지만은 그렇다고 그 사람들도 영세민인데 지그만에는 뭐 안가는게 낫고. 주거지역으로써는 가는게 백번 낫지. 그런데 이게 시정될까 같으면.....

필자 : 여기에 있는 .. 공장을 경영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공장이 이 지역에 있어서 이곳 주민들에게도 좋은 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부직도 쉽게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徐씨 : 그런 거는 극소수이지. 전부 공장들이 요만한데 .... 그렇다고 그런 공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거 말도 안되는 얘기라. ... 종업원 한명 아니면 두명인데, 그래봤자 이 소음공해를 무시못하는 거지 뭐. ... 그런데 그런 공장에서 냄새나고, .. 소음 말할수도 없다고. . 자기입장으로써 이야기지, 그거는 10분의 1도 안되지, 피해주는 것은 10분의 9고. 주차문제고 소음공해고 모든 것이 고만 10분의 9라고. 요기 있는 .. 큰공장도 안 가거든. 그런데 팔아가지고 ... 만데 가서 공장사면 열배 큰데 살수 있어. 요돈가지고 번두리가면 열배 넘게 사네. 안 그런가. 지그 생각대로 하는기라. 계잡다(가잡다)카는 기라. 그 이유만으로<sup>7)</sup>. 그 사람 그 인력 얼마나 많아. ... 암만 민원을 내도 안나가. 얼마나 경기가 좋은지 몰라여기. ...

즉, 주변에 기계·금속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에 대해 진정이나 민원을 내봐도 주민들의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공장들이 자발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해 나가기를 원하고 있는 실

정이다. 이 지역이 소규모 제조업체들에 있어서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음을 徐氏 자신도 시인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반박하고 있다. 공장이 있음으로써 지역주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며, 그보다는 피해가 훨씬 크다는 점을 강도 높게 피력하고 있다. 따라서 서씨의 견해가 주민 대다수의 견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 주민과 제조업체 관계자간의 갈등도 상당히 잠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연구지역의 제조업 현황

대구시 북구지역은 대구의 제조업중 가장 많은 업체가 입지하고 있으며, 특히 기계공업은 전체 업체의 50% 이상이 입지하여 섬유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대구의 타지역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노원1·2가동은 1인이상의 사업체가 중구 대신1동(5,622), 중구 동성동(4,908) 다음인 세 번째로 많은 2,612개의 사업체가 입지하고 있다<sup>8)</sup>. 하지만 대신1동과 동성동은 각각 서문시장과 대구의 도심상가지역으로 전체 사업체대비 제조업체비율이 각각 4.3%, 7.1%에 불과한 반면에 노원1·2가동은 제조업체비율이 44.3%로써 가장 많은 제조업 사업체가 입지한 동이다. 연구지역인 노원2가동 준주거지역에 입지한 전체 사업체수는 878개, 총 종사자수는 2,525명으로 사업체당 평균종사자수는 2.9명이다. 전체 사업체중에서 59.5%가 제조업 사업체이며, 이밖에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이 17.2%, 숙박 및 음식점업이 15.4%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에서 제조업은 총 522개업체에 종사자수는 1,763명으로 업체당 평균 종사자수 3.4명의 매우 영세한 규모의 자영업 성격이 강하다(표 2).

제조업의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기계금속산업이 사업체수 472개로 90.4%, 종사자수는 1,547명 87.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연구지역의 경우는 기계금속업체가 전체 업체수의 53.9%, 총 종사자수의 61.6%나 차지하고 기계금속업종 중에서도 조립금속과 일반기계가 전체 사업체수의 60.2%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섬유의류업은 2.5%에 불과하다.

대도시 주공혼재지역의 영세제조업의 존립기반: 대구시 노원동을 사례로

<표 2> 연구지역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구 분	사업체수	%	종사자수	%
제조업	522	59.5	1,763	69.8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151	17.2	378	15.0
숙박 및 음식점업	135	15.4	229	9.1
기타	70	8.0	155	6.1
계	878	100.0	2,525	100.0

자료 : 노원 1·2가동 자체 전산자료를 필자 정리 재구성(1997, 12, 31 기준)

종사자규모별로는 전체 제조업 사업체중 5인미만이 81.8%, 5~9인 규모의 업체는 14.2%를 차지하여 96%의 사업체가 10인 미만의 영세업체이다(표 3).

기계금속산업은 산업간의 전후방관련효과가 대단히 큰 산업이며, 또 설비산업으로서 타산업의 생산활동에 대한 의존도와 기여도가 높은 산업으로써, 다수의 부품을 가공조립하여 최종생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산업 내 수직적 분업관계의 형성과 이에 기초한 하청생산이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이성진, 1995).

연간 매출액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종사자 5인미만의 사업체의 업체당 평균매출액은 5,693만원, 종사자 1인당 평균매출액은 2,759만원이며, 업체수의 14.2%를 점하고 있는 5인이상 9인이하의 사업체의 업체당 평균매출액은 20,535만원, 종사자 1인당 평균매출액은 3,156만원으로써 매우 영세한 공장들이 이 지역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sup>9)</sup>.

본 연구지역의 주된 업종인 기계금속업종중에서도 표준산업분류 28번과 29번에 해당하는 조립금속

과 일반기계업종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 4> 연구지역 주요업종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구분	지역	사업체수	종사자수
산업용중간재 및 재생재료도매업	북구전체	457	1,884
	노원1·2가동	90	287
	노원3가2동	77	438
	침산1동	30	144
	칠성2가1동	29	126
산업용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	북구전체	199	646
	노원1·2가동	67	151
	고성동	28	96
	노원3가2동	19	89
	칠성2가1동	18	56

자료: 대구광역시 북구, 1997,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 (1996년 기준).

주: 제시된 동은 북구중에서 산업분류별 사업체수 비중이 큰 순서대로 4개동임.

<표 3> 연구지역의 제조업 업종별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업종	규모별 사업체수										종사자			
	1-4		5-9		10-19		20-29		30-		계	%	종사자수	%
섬유류 (SIC17,18)	10		2		-		-		1		13	2.5	84	4.8
기계금속 (SIC27~35)	조립금속(28)		144		15		-		-		159	30.5	355	20.1
	일반기계(29)		176		25		4		2		208	39.8	680	38.6
	기타 기계금속		70		23		9		2		105	20.1	512	29.0
	소계		390		63		13		4		472	90.4	1547	87.7
기타 제조업 (SIC15,20~26,36)	27		9		1		-		-		37	7.1	132	7.5
계	427	882*	74	481*	14	183*	4	89*	3	128*	522	100.0	1763	100.0
	(81.8)	(50.0)	(14.2)	(27.3)	(2.7)	(10.4)	(0.8)	(5.0)	(0.6)	(7.3)				

자료 : 노원1·2가동 자체 전산자료를 필자가 정리 재구성(1997, 12, 31 기준).

\* 제조업체 종사자 규모별 총 종사자수

기계금속 업종의 소규모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기계금속의 중간재 생산과 밀접히 관련된 산업용 중간재 도매업의 비중이 다른 동에 비해서 크다. 노원 1·2가동에 북구전체 산업용 중간재 및 재생재료도매업의 19.7%가 입지해 있으며, 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의 33.7%가 입지해 있다(표 4).

이상과 같이 현 지역에는 기계금속산업을 중심으로 많은 소규모 영세 제조업체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주공혼재라는 토지이용을 둘러싼 주민과 사업체 경영주들간에 갈등의 소지를 다분히 가지고 있다. 물론 대구광역시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3공단을 포함한 노원동 지역을 주거지역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16년 대구도시기본계획에서도 낙동강 연안의 위천·구지 지역에 공업용지를 대폭적으로 신설 및 확장하며, 기존의 도심내에 있는 산재한 공업지역을 주거지로 변경하며, 기존공장을 낙동강변의 신설공업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다(대구광역시, 1997a). 하지만 대구광역시의 입장에서 대구경제 활성화를 방안으로 위천공단을 국가산업단지화하려는 계획은 자치단체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계획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있으며, 이로 인해 위천공단 지정과 연계되어 있는 기존의 도심에 위치한 공단지역에 대한 정비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 대구시는 기존의 도심 공단지역에 주거단지 개발계획을 세웠으나,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영기로 공장이전이 안돼 현재 해당기초단체들이 이전에 대비한 자체 개발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sup>10)</sup>. 한편 북구청은 2016년 대구도시기본계획

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북구 노원동 3공단지역에 당초 공동브랜드를 생산하는 공단을 조성하는 등의 3공단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구시가 3공단을 포함한 8개의 도심공단을 시외곽으로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대구시의 도시기본계획에 위배되어 3공단 활성화계획은 포기하게 되었다<sup>11)</sup>.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만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말썽이 많은 위천공단이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3공단과 본 연구의 연구지역에 남아있는 기계·금속업종의 영세 공장들이 위천공단으로 이전해 갈 경제적 여력이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또한 아래에서도 살펴볼게 될 것이지만, 현 지역에서 영세 공장들간에 긴밀하게 구축된 네트워크형 생산관계를 파괴하지 않는 발전적인 대안은 없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일각에서는 “제3산업단지(3공단)의 입주업체들이 인근지역 기업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납품하는 긴밀한 산업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기계 및 조립금속업을 중심으로 산업연계가 이루어져 있어,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육성하는 벤처산업단지로 재정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3산업단지에는 생산기능과 주거기능, 상업기능 등이 혼재되어 있어 생산기능을 중심으로 이를 지원하는 주거기능과 업무 및 판매기능이 복합적으로 입지하는 자기 완결형 산업생산체계를 갖추도록 재정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12)</sup>.

<표 5> 조사업체의 업종구분

	제조업		상업		합계	
	업체수	%	업체수	%	업체수	%
기계	43	61.4	4	28.6	47	56.0
금속	11	15.7	3	21.4	14	16.7
기계금속	5	7.1	-	-	5	6.0
섬유	1	1.4	-	-	1	1.2
안경테	3	4.3	-	-	3	3.6
기타	7	10.0	7	50.0	14	16.7
합계	70	100.0	14	100.0	84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

주: 기계금속은 기계와 금속에 복수로 업종을 표시한 사업체이다.

#### 4. 제조업체의 경영특성 및 입지요인

본 연구지역의 영세 제조업체의 경영특성과 입지요인은 업체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대상은 총 84개 업체이고 그 중에서 제조업이 83.3%(70개), 상업이 16.7%(14개)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체 중에는 업종의 성격상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기계와 금속으로 복수응답을 포함하면 기계와 금속 업종이 대다수인 78.7%(66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밖에 섬유는 1개 업체, 안경테는 3개 업체이다. 가장 비중이 큰 기계업종의 경우 섬유기계부품, 안경부품, 자동차부품이 중심이며 금속업은 금형·목형과 용접, 그리고 철강재·펌프·파이프 등의 생산업체로 구성되어 있다. 상업은 기계금속관련업종과 전기용품, 유탄유,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판매업체들로 생산자 서비스업체로 타지역의 소비자 서비스 중심의 상업과는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표 5). 바꾸어 말하면 지역 내 산업자본과 상업자본간의 사회적 분업체계에 기초한 전형적인 산업지역사회(industrial community)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 1) 제조업체의 경영특성

사업체 경영주들의 평균연령은 41.8세이며, 30대가 42.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40대가 37.8%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체 경영주들의 학력은 고졸이 50.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졸이하의 26.5%이고, 대졸이상은 8.4%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경영주의 전직을 보면 동일 직종의 종업원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동일 직종 종사자의 창업전 경력을 보면 전체의 88% 이상이 10년 이상의 기술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난다. 5년 미만과 5 - 9년의 경력을 바탕으로 창업한 경영주는 각 6.1%에 불과하며, 55% 가량이 10 - 19년, 20년 이상의 경력을 바탕으로 창업한 경영주도 32.7%에 이른다. 이를 통해 이 지역 제조업체 경영주의 대부분이 고졸이하의 기술직 출신으로 경영능력 보다는 생산기술을 기반으로 분리창업하였으며, 현재에도 경영주의 90%가 생산활동에 직접 참가하고 있는 청장년층임을 알 수 있다(표 6). 여기서 주목할 점은 대도시 중소기업 집적지는 단순한 생산 공간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자연 발생적 창업보육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영주의 거주지를 보면 대구광역시외의 공업중심지역인 북구와 서구가 76.9%를, 그리고 노원 1·2가동이 30.5%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제조업 경영주의 20%에 해당하는 14명은 동일 부지내에서 다른 층에, 나머지 4명은 동일 건물 같은 층에서 주거와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주·공혼재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동일 부지내에서 주택과 사업을 겸하고 있지 않는 경영주의 경우에도 사업체 인접지역에 생활근거지를 마련함으로써 사업 네트워크상의 접근성의 최대화와 유사한 사회·경제적 배경은 네트워크상의 신뢰강화의 기반이 되고 있다.

<표 6> 경영주의 사회적 속성

단위: 인(%)

연령		학력		전직업	
30세이하	4(4.9)	국졸이하	7(8.4)	동일직종 대·중기업 종업원	21(30.0)
31-40세	35(42.7)	중졸	15(18.1)	동일직종 영세소기업 종업원	28(40.0)
41-50세	31(37.8)	고졸	42(50.6)	타직종의 종업원	8(11.4)
51-60세	12(14.6)	전문대졸	12(14.5)	상업 및 서비스	7(10.0)
61세이상	-	대졸이상	7(8.4)	기타	6(8.6)
계	82(100.0)	계	83(100.0)	계	70(100.0)

자료: 설문조사

주: 무응답자를 제외하였음.



<표 7> 창업전 동일 직종 종사자의 보유 경력

경력 연수	종사자수	%
5년 미만	3	6.1
5 - 9년	3	6.1
10 - 19년	27	55.1
20년 이상	16	32.7
계	49	100.0

자료: 설문조사  
주: 무응답자를 제외하였음.

조사대상 제조업체의 88.7%가 종사원 5인이하의 소규모 영세업체이다. 특히 1인 사업자, 즉, 종업원이 1명도 없는 경우가 16.1%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종업원수는 180명이며, 그중에서 93.9%가 남자이며, 여자 종업원은 11명에 불과하다. 이들 종업원의 조사 기업에서의 근속 연수는 2년 이하가 전체의 35.5%를 차지하고, 2 - 3년이 22.2%, 4 - 6년이 16.5%, 7 - 9년이 13.5%이며 10년 이상은 12.5%에 불과하게 나타난다(표 8).

<표 8> 종사자의 근속 연수

근속연수	종사자수	%
2년 이하	71	35.5
2 - 3년	44	22.0
4 - 6년	33	16.5
7 - 9년	27	13.5
10년 이상	25	12.5
계	200	100.0

자료: 설문조사  
주: 무응답자를 제외하였음

<표 9> 종사자의 직종 경력

직종 경력	종사자수	%
3년 이하	67	36.0
3 - 6년	46	24.8
7 - 10년	53	28.6
11 - 15년	7	3.7
15년 이상	13	6.9
계	186	100.0

자료: 설문조사  
주: 무응답자를 제외하였음.

또한 이들 종업원의 해당 직종에 대한 경력을 살펴보면 3년 이하의 경력 소지자가 전체의 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3 - 6년과 7 - 10년이 각 24.8%, 28.6%를 차지하며, 그 이상의 경력 소지자의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으로 11 - 15년이 3.7%, 15년 이상이 6.9%를 차지하고 있다(표 9).

그리고 가족이 종업원으로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44.3%를 차지하고 있다. 즉, 이 지역의 제조업체는 가능한 한 가족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영과 생산이 미분리된 전형적인 영세제조업 집적지역의 특징이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표 10> 종사자 규모별 현황

구분	전체종사자		가족종사자	
	수	%	수	%
0인	-	-	34	55.7
1인	10	16.1	20	32.8
2인 - 5인	45	72.6	7	11.5
6인 - 10인	4	6.5	-	-
11인 - 20인	2	3.2	-	-
20인이상	1	1.6	-	-
계	62	100.0	61	100.0

자료: 설문조사  
참고: 가족종사자에는 경영자가 포함되지 않음.

조사 기업의 종업원중 동업종의 창업을 위해 회사를 그만둔 종업원이 있다는 기업은 31개사로 응답기업 중 56%를 차지한다. 창업을 위해 회사를 그만둔 종업원의 창업장소로는 전체의 51.6%가 인근 노원동 지역에서 창업을 하였으며, 그외 근처의

<표 11> 분리 창업자의 창업지역분포

창업지역	수	%
노원동	16	51.6
노원동외의 북구, 서구, 달서구, 달성군 일대	7	22.6
대구 타지역	6	19.4
경북 및 기타 지역	2	6.4
계	31	100.0

자료: 설문조사  
주: 무응답자를 제외하였음.

대도시 주공존재지역의 영세제조업의 존립기반: 대구시 노원동을 사례로

북구, 서구, 달서구, 달성군 일대에서 창업한 경우가 22.6%, 대구의 타지역이 19.4%로 전체적으로 인근 지역에서 창업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표 11). 창업을 함에 있어 노원동 내부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매우 높다는 것은 종업원들의 분리 창업 과정이 산업지역사회의 재생산을 통한 존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업자 및 공장등록은 거의가 개별등록이고, 공동등록이 2개 업체로 거의 모든 업체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공장등록의 경우 무등록이 58.6%를 차지하여 영세기업의 일반적 특성이 두드러지고 있다(표 12). 이와같은 무등록공장은 환경오염물 배출규제나 공장증설억제와 같은 정부의 각종규제를 벗어날 수 있다. 현행 공업배치법상에는 공장건축(바닥)면적 200㎡(약 60평)이상의 공장을 신설, 또는 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공장이 무등록공장이다. 그러나 본 지역의 경우 전체사업체의 84.3%가 법적으로는 등록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표 12> 사업자 및 공장등록 현황

구분	공장등록		사업자등록	
	수	%	수	%
개별등록	27	38.6	61	89.7
공동등록	1	1.4	2	2.9
등록된 업체에 이주	-	-	2	2.9
무등록	41	58.6	3	4.4
이전조건부등록	1	1.4	-	-
합계	70	100.0	68	100.0

자료: 설문조사  
주: 무응답자를 제외하였음.

더욱이 규정의 1/3에 지나지 않는 20평이하가 51.4%를 차지하여(표 13) 주택의 일부를 공장으로 사용하거나 평소 잘 아는 사람의 사업장 일부를 빌려 기계 한, 두대를 두고 하청 혹은, 임가공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1인 사업자가 중심이 되고 있다.

<표 13> 공장면적별 구성

면적(평)	공장수	%
1-20	36	51.4
21-40	12	17.1
41-60	11	15.7
61-100	5	7.1
101-200	4	5.7
201이상	2	2.9
합계	70	100.0

자료: 설문조사  
주: 무응답자를 제외하였음.

따라서 연간 매출액(1998년 기준) 2,000만원미만이 29.0%를 차지하여(표 14) 이들 업체의 소득은 근로자의 임금소득 정도로 가족의 생계유지에 급급할 정도이다. 따라서 사업의 확대나 발전을 위한 확대재생산을 위한 투자는 기대할 수 없는 생계의 존적 영세업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표 14> 매출액별 구성(1998년)

규모	업체수	%
2,000만원미만	18	29.0
2,000만원이상 ~6,000만원미만	16	25.8
6,000만원이상 ~1억미만	12	19.4
1억이상~4억미만	12	19.4
4억이상	4	6.5
계	62	100.0

자료: 설문조사  
주: 무응답자를 제외하였음.

이상 본 연구대상 지역의 경영특성은 가족노동 중심의 생계의존적 영세업체로 개별기업 차원에서 보면 확대 재생산을 위한 투자가 거의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산업지역사회 차원에서 보면 지역내 사회적 분업과 이에 따른 분리 창업의 용이성에 기초한 창업보육센터로서의 기능에 이 지역의 확대 재생산과 존립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산업지역사회 존립의 핵심적 존립기반인 네트워크 생산체계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조사 대상기업 중 54%(38개사)가 외주를 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외주 비율은 외주 기업 전체로 볼 때 평균 약 25%에 달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기업들(외주 발주 기업중 80%)이 외부를 30% 내외로 하고 있고, 이중 50% 이상을 외주에 의존하는 기업은 약 9%(3개사)이다. 이러한 외주업체는 약 56%가 고정 거래 업체에 외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고정 거래 업체가 정해져 그곳과의 거래 비율이 90%이상인 업체가 13개사로 약 44%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들 업체의 대부분은 외주비율이 30% 미만의 기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주를 하는 이유를 보면, 가장 큰 이유로 현재의 설비로는 납기를 맞추기 어렵다는 것(32.7%)과 설비 투자를 위한 자본의 부족(28.8%)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13.5%)과 노동과 관련하여 임금 비용의 축소(7.8%)와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5.8%)을 언급하고 있다(표 15).

<표 15> 외주 이유

이유	업체수	%
수요의 불안정	1	1.9
현재 설비로 납기 맞추기 어려움	17	32.7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	3	5.8
설비 투자를 위한 자본의 부족	15	28.8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7	13.5
임금 비용 축소	4	7.8
원자재 구득 어려움	2	3.8
부품이 표준화 되지 않음	2	3.8
특허와 관련된 제품	1	1.9
계	52	100.0

자료: 설문조사  
주: 무응답자를 제외하였음.

또한 조사 기업이 외주를 주는 업체와의 협력관계를 살펴보면, 장비의 공동활용(33.3%)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인력의 공동이용(18.2%), 제품의 공동개발(15.2%), 기술지원(15.2%)과 공동마케팅(9.1%)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16).

다음 하청관계에 있어서는, 전체 70개 조사 기업

중 40개 업체가 하청을 받고 있다. 이들의 하청 의존도는 전체 제품 매출액의 약 78% 가량으로 나타나, 외주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청 비율을 구체적으로 보면 조사 기업중 15%가 총 매출액의 30%를 하청에 의존하며, 13%의 기업이 31

<표 16> 하청업체와의 관계

구분	업체수	%
인력 공동 이용	6	18.2
공동 제품 개발	5	15.2
공동 공정 개발	2	6.0
장비의 공동 활용	11	33.3
금융 협력	1	3.0
공동 마케팅	3	9.1
기술 지원	5	15.2
계	33	100.0

자료: 설문조사  
주: 무응답자를 제외하였음.

- 50%를 하청에 의존하며, 50%이상을 하청에 의존하는 기업은 전체의 71%에 달한다. 특히 이들 기업중 24개사가 완전 하청(100% 하청 의존)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7).

<표 17> 총매출액중 하청비율

비율	업체수	%
30% 미만	6	15.0
31 - 50%	5	12.5
50 % 이상	29	72.5
계	40	100.0

자료: 설문조사  
주: 무응답자를 제외하였음.

또 원청업체와의 협력관계에 있어서는 제품의 공동개발이 약 29.8%를 차지하여 그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기술지원이 19.2%를 차지하고, 그 외 공동 공정개발(10.6%), 금융협력(8.5%), 장비의 공동활용(8.5%) 등이 나타나고 있다(표 18).

이상의 네트워크 생산체계상의 특성으로는 역내 통합수준이 높은 수평적 하청체계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소규모 사업체의 특성상 안정적 거래관계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

대도시 주공혼재지역의 영세제조업의 존립기반: 대구시 노원동을 사례로

문이다. 특히 소규모 물량도 수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을 수 있으며 짧은

조사대상 제조업체의 설립시기를 보면 1980년 이전은 10%미만에 지나지 않는 반면 1991년 이후의 창업비율이 80%이상을 차지하여 창업세대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8> 원청 업체와의 협력 관계

협력 관계	업체수	%
인력 훈련	1	2.1
인력 공동 이용	3	6.4
공동 제품 개발	14	29.8
공동 공정 개발	5	10.6
장비의 공동 활용	4	8.5
금융 협력	4	8.5
공동 마케팅	3	6.4
기술 지원	9	19.2
기타	4	8.5
계	47	100.0

자료: 설문조사  
주: 무응답자를 제외하였음.

그러나 이들 업체중 44개는 현재 입지이전한 사업체인데, 이전업체의 72.7%가 노원동을 포함한 북구내에서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다. 더욱이 전체의 56.8%(25개)는 노원동 내, 특히 16개 업체는 노원1·2가동내에서 이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첫째, 무등록 영세업체로 이전에 따른 매몰비용이 별로 이전의 장애요소가 되지 않는 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소규모업체 집적지역의 상호의존성이라는 '관계적 자산'이라는 국지적인 고착성을 동시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간의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서는 안정적 후방연계가 절실하기 때문에 거래업체수가 많게 된다.

이상의 일반적 입지특성 외에 경영주의 중요한 입지동기를 살펴보면, '주변에 원재료 및 부품공급업체가 입지'한 요인(35.5%), '주변에 관련 업체들이 입지'한 요인(23.9%), 그리고 '주변에 판매 시장이나 생산품의 구입업체들이 입지'한 요인(12.3%)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소규모 기계금속업종의 특성상 빠른 시간내에 납품을 해야하는 단일공정업체가 많기 때문에 이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관련·연계업체가 밀집하여 신뢰관계에 기초한 중층적 네트워크구조에 편입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외부경제효과가 최대의 존립기반이 되고 있음을 반

결론적으로 도심부 주공혼재지역의 존립기반은 영세 업체간의 생산체계상의 네트워크 이점을 들 수 있다.

2) 입지특성

<표 19> 노원 1·2가동의 주공혼재지역에 입지하게 된 동기

입지동기	빈도			점수	%
	제1순위	제2순위	제3순위		
주변에 원재료 및 부품공급업체가 입지	45	9	6	159	35.5
주변에 주요 판매시장이나 생산품의 구입업체 입지	6	14	9	55	12.3
주변에 기술 및 기업정보관련 단체의 입지	3	12	3	36	8.0
주변에 관련 업체들이 입지	16	23	13	107	23.9
생산직 노동력 구득 용이	2	5	8	24	5.4
가내 임가공 노동력 구득 용이	1	2	6	13	2.9
교통 편리	1	4	2	13	2.9
지가 및 임대료 저렴	3	2	-	13	2.9
기업주 자택이 입지	3	1	6	17	3.8
기타	3	-	2	11	2.5
합계	83	72	55	448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  
주) 점수계산은 1순위에 3점, 2순위에 2점, 3순위에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함.  
복수응답의 경우가 있으므로 합계가 조사대상업체수보다 많음.

영하고 있다.

그러나 본 지역의 경우에는 업종이나 업체의 성격상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리한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입지상 불리한 조건은 “주차문제가 심각함”(39.6%)과 “높은 지대 및 임대료”(12.6%)이다. 2순위로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도로가 협소하여 적재·하역이 곤란”이며, 그 다음으로는 “공기가 혼탁하고 소음이 심함”이다. 전체적으로 “주차문제가 심각함”과 “공기가 혼탁하고 소음이 심함”이다. 이에 비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잦음”, “종업원의 전직이 심해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가 불리”, “관공서의 환경규제로 인한 불편” 등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 후 충분한 주차시설을 갖추지 않은 많은 다세대주택이 난립하고, 영세기계금속업체의 특성상 원료수급이나 제품의 출하가 빈번하고 대부분의 업체들이 공장을 임차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동시에 용도변경 이후에 지대 및 임대료가 상당히 상승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장의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는 물론 이 지역이 원래 준공업지역이었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그러한

당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불리한 입지요인에서 ‘종업원의 전직이 심해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의 불리’의 비중이 매우 낮은 것은 집적된 소규모 공장들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풀(pool)이 형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구직이나 구인 정보가 일상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원활하게 교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입지상의 이점과 불리한 점을 이전문제와 결부시킨 한 사업체 경영주와 인터뷰한 내용이다.

필자 :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鄭씨 : 성서 삼성자동차 뒤에도 소규모 공장을 어느 정도 육성한다고 하는데 별로 뭐 다들 호응을 안하거든. 공짜로 주면 몰라도. 삼성자동차 뒤쪽에도 땅값이 비싸더라고. 그래서 임대(임차)로 있는 사람들이 주이고(대부분이 고), 안 그러면 공장 해봐야 뭐 한 20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갈 사람들이 잘 없어.

鄭씨의 처 : 떠나갈 마을이야 많지. 그렇지만 그 소규모 공장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

<표 20> 입지상 문제점

	제1순위	제2순위	제3순위	점수*	%
높은 지대 및 임대료	15 (18.5)	2 (2.7)	3 (6.7)	52	12.6
주차문제 심각	45 (55.6)	13 (17.8)	3 (6.7)	164	39.6
도로가 협소하여 적재·하역 곤란	7 (8.6)	20 (27.4)	6 (13.3)	47	11.4
건물이 낡았고 작업공간 협소	4 (4.9)	14 (19.2)	6 (13.3)	46	11.1
주민들의 민원 빈번	-	2 (2.7)	4 (8.9)	8	1.9
공기가 혼탁하고 소음이 심함	9 (11.1)	18 (24.7)	17 (37.8)	80	19.3
종업원의 전직이 심해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가 불리	-	-	3 (6.7)	3	0.7
관공서의 환경규제로 인한 불편	-	2 (2.7)	-	4	1.0
기타	1 (1.2)	2 (2.7)	3 (6.7)	10	2.4
합계	81 (100.0)	73 (100.0)	45 (100.0)	414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

주: 점수계산은 1순위에 3점, 2순위에 2점, 3순위에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함.

지역의 사정을 알고 거주하며, 뿐만 아니라 주민의 상당수도 기계금속업종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 경영자들과 공유하는 공간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하여 상

이 아니잖아. 거기 또 땅값이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가는 것이지. 그쪽으로 가면 뭐 좋을텐데 너무 땅값이 비싸고 해서.

필자 : 사장님께서 사실상 돈이 없어서 이전을

대도시 주공혼재지역의 영세제조업의 존립기반: 대구시 노원동을 사례로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정 이외에 소규모 공장의 상호하청관계라든지 그러한 협력관계도 이전하기 힘든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鄭씨 : 지금 인자 우리들의 모체(하청을 주는 중·대기업)는 대구 성서(성서공단)라든지 안 그러면 달성공단에 있는데. 글치만은 우리가 모체 따라간다고 해서 될일이 아니거든. 왜냐 하면 ... 가내공업 같은 이런거는 뭐 하나 살라카른(사려고 하면) 이리 와야 되거든. 그것 때문에 사람 하나 따로 부를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은 가깝게 다 구매를 해가 쓸수가 있고 뭐 이런 첫째 여건이 제일 좋은 게 고거야. 이런데서는 사장이 아니라 공장장 겸 영업사원 겸 뭐 이거 뭐고 경리담당 겸 이래 살거든. 멀리가지 못하고. ... 대구 은행 공단도로 이쪽으로는(노원2가동) 준주거 지역으로 책정되어 있거든. 저 3공단쪽으로는 뭐 몇 연도부터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는 이런 말이 있거든. 뭐 앞으로 10년 쟤지만은 우리가 봤을때는 뭐 굳이 그렇게 뭐 되지는 않을 거 같애. 우리가 생각했을때는 그냥 그대로 놔두는게 제일 좋을 거 같애.

이상의 면담내용에서 성서공단이나 달성공단에 소규모 영세기업들에 하청을 주는 중·대규모의 업체들이 입지해 있지만, 현재 연구지역에 임대로 있는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원청업체를 따라서 시외곽 지역으로 이전하기에는 부지를 확보할만한 재정적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sup>13)</sup>. 또한 부품이나 원자재의 구매처가 현 지역과, 그리고 인접한 중구의 북성로 등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의 측면에서 매우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씨는 현재의 입지에서 계속해서 남아있기를 바라고 있다. 연구지역에서 사업체를 경영하는 대다수의 경영자들은 소규모 영세업체의 이전

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리가 잡히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설문 조사의 결과를 통해서 보면, 전체 70개 업체중 40%(28개사)가 이전을 원하고 있으며 이중 약 70% 가량이 인근 지역으로의 이전을 원하고 있었다. 이전을 원하는 장소로서는 노원 3가동의 3공단 지역이 전체의 29.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다음으로는 달서구가 22.2%, 노원 1·2가동 내와 노원동 외의 북구가 각 18.5%로 대부분이 인근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1).

<표 21> 이전 계획지

장 소	업체수	%
노원 1·2가동내	5	18.5
노원 3가동(3공단)	8	29.5
노원동 외 북구	5	18.5
서구	2	7.4
달서구	6	22.2
대구시외	1	3.7
계	27	100.0

자료: 설문조사

주: 무응답자를 제외하였음.

이상의 분석 결과, 본 연구지역내의 영세제조업체 집적의 핵심적 요인으로는 생산과정상에서 '하청-재하청관계'를 통한 네트워크 이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주공혼재지역의 사업체 이전문제는 반드시 기존에 형성된 생산과정상의 영세 사업체들간의 네트워크생산체계가 파괴되지 않는 방식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5. 제조업 경영자의 사회적 연결망

그라노베터(1985)는 합리적인 경제행위를 포함한

<표 22> 사업체 연결망 규모, 밀도의 기술통계적 특성

	평균	표준오차	중앙값	최빈값	표준편차	첨도	왜도	범위	관측수	신뢰수준(95%)
규모	3.02	0.12	3	3	1.14	0.51	-0.45	5	84	0.25
밀도	0.82	0.04	1	1	0.30	1.51	-1.64	1	73	0.07

<표 23> 사업체 경영주 속성간의 상관관계

	연령	교육수준	친목단체 가입여부	사업체 설립년도	노원동거주여부	공장소유여부
교육수준	-0.454**					
친목단체 가입여부	0.262*	-0.205				
사업체 설립년도	-0.495**	0.150	-0.355**			
노원동거주여부	0.168	-0.195	0.322**	-0.255*		
공장소유여부	0.122	-0.077	0.204	-0.368**	-0.156	
종업원수	-0.124	0.198	0.020	-0.115	0.109	0.203

자료: 설문조사, 유의수준 \*<0.05, \*\*<0.01

모든 인간의 행위는 사회구조적 맥락속에 배태되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모든 경제활동도 행위자들간의 신뢰에 기초를 두며, 그 신뢰의 기초는 행위자들간의 사회적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연구지역의 소규모 영세 사업체 경영주들의 사회적 연결망은 생산활동에 있어서 신뢰에 기반한 외부경제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사업체 경영주들의 사회적 연결망<sup>14)</sup>의 평균 규모는 3.02이며, 밀도는 0.82로써 촘촘하게 짜여진(close-knit) 연결망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높은 밀도를 가지는 특성으로 인해서 연결망 내부에서 사업을 매개로 정보교환이나 의사소통이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업체 경영주 속성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친목회, 상조회 가입여부가 증가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생산활동에서의 협조, 협력 관계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유대관계로 발전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친목회, 상조회 가입 여부와 노원동 거주 여부는 감소하고 있다. 사업체 경영주의 노원동 거주 여부는 친목회, 상조회 가입 여부와 정(+ )적인 상관관, 반면에 친목회 가입여부는 설립년도와 부(-)적 상관관을 보이고 있다.

경영주의 사회적 연결망의 평균인지년수는 방문 비율과 신뢰수준 95%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연결망의 평균인지년수가 클수록 방문비율도 증가함을 알 수 있는데, 피조사자가 사업체 연결망의 가정에 방문한 경우에는 평균 인지년수가 10.0년으로써, 그렇지 않은 경우의 평균

인지년수인 6.1년과 약 4년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표 24). 특히 가정을 방문한 경우가 68.5%나 되며, 더구나 피조사자가 노원1·2가동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주변의 다른 사업체 경영주들과 친목회, 또는 상조회 등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42.9%였는데, 특히 기계금속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체 경영주는 평균보다 높은 47.5%가 친목회나 상조회 등을 조직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체 연결망과의 유대와 결합이 단순히 사업상 또는 구체적으로 생산과 정상의 협조협력관계뿐만 아니라, 생활과 사교의 측면에서도 상부상조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국지적인 지역, 공통의 이해관심사, 사회적 유대 등을 겸비한 국지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표 24> 사업 연결망의 가정방문유무

유		무	
빈도(비율)	평균인지년수	빈도(비율)	평균인지년수
172 (68.5)	10.0	79 (31.5)	6.1

자료: 설문조사

다음은 입지요인별로 경영주의 사회적 연결망 속성의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표 25). 가장 중요한 입지요인인 '주변에 원재료 및 부품공급업체 입지'와 그 다음으로 '주변에 관련업체들이 입지'를 비교해 볼 때, 후방연계에 초점을 둔 '주변에 원재료 및 부품공급업체'에 표기한 사업체의 경우 '주변에 관련업체들이 입지'에 표기한 사업체에 비해 연결망의 밀도, 노원동거주비율, 방문비율, 동일업종비율 등이 낮지만, 연결망의 규모, 기계금속비율과 평균

대도시 주공혼재지역의 영세제조업의 존립기반: 대구시 노원동을 사례로

<표 25> 입지요인별 사업체 연결망 속성과 사업체 경영주 속성의 평균

	규모	밀도	노원거 주비율	방문 비율	기계금 속비율	동일업 종비율	평균인 지년수	노원거 주여부	공장소 유여부	가입 여부	연령	설립 년도	종업 원수
주변에 원재료 및 부품공급업체	3.16	0.69	0.24	0.64	0.87	0.65	9.18	0.23	0.31	0.42	41.88	92.39	2.36
주변에 주요판매시장이나 구입업체 입지	3.33	0.98	0.33	0.29	0.75	0.22	3.61	0.20	0.33	0.00	39.17	93.33	2.00
주변에 기술 및 기업정보 관련 단체가 입지	3.33	1.00	0.47	0.56	0.56	0.89	4.89	0.67	0.00	0.33	45.00	91.50	2.33
주변에 관련업체들이 입지	2.81	0.89	0.38	0.83	0.61	0.70	8.26	0.44	0.50	0.69	38.47	91.44	2.13
생산직 노동력을 구하기 쉽다	3.00	1.00	0.13	1.00	0.88	0.88	10.38	0.00	1.00	0.50	50.50	74.50	3.50
가내 임가공 노동력을 구하기 쉽다	4.00	1.00	0.25	0.75	1.00	1.00	5.00	1.00	0.00	0.00	41.00	97.00	1.00
교통이 편리하다	1.00	-	0.00	1.00	1.00	1.00	5.00	0.00	0.00	0.00	33.00	94.00	2.00
지가 및 임대료가 싸다	3.33	0.83	0.67	0.57	0.67	0.33	5.42	0.33	0.00	0.00	38.67	93.67	1.67
기업주의 자택이 있다.	2.00	1.00	0.00	1.00	1.00	0.84	26.67	0.67	0.33	1.00	54.00	82.00	1.00
기타	2.33	1.00	0.34	0.67	0.78	0.44	10.33	0.00	0.00	0.00	44.33	96.00	0.67

<표 26> 사업 연결망 구성원들의 직종구성

	기계	금속	기계+금속	기계+섬유	섬유	안경테	기타	합계
빈도	159	22	23	1	10	15	24	254
%	62.6	8.7	9.1	0.4	3.9	5.9	9.4	100.0

자료: 설문조사

주: 기계+금속, 기계+섬유 항목은 기계와 금속, 기계와 섬유의 복수응답임.

인지년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후방연계를 가장 우선시하는 사업체의 경우, 경영주의 사회적 연결망이 상대적으로 느슨하고 형식적이다. 그 원인으로서 사업체 경영주간의 친목회, 상조회 등의 가입 여부가 보다 낮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경영주의 사회적 연결망 구성원들의 직종구성을 살펴보면(표 26), 단일 항목으로는 기계가 159명으로 62.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속은 22명으로

8.7%를 차지하고 있다. 기계와 금속업종이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기계와 금속 모두에 응답하고 있는 경우도 23명으로 9.1%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기계와 금속 업종을 합치면, 이 두 업종에 종사하는 연결망 구성원들은 모두 204명으로 전체의 80.3%를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구성원들의 거주지 분포를 살펴보면, 북구(57.6%)에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며, 그 다음으

<표 27> 사업 연결망 구성원들과의 사업상 협조협력관계

	경영조언	하청·재하청 관계	용자보충	급전대부	기계·장비이용	기술지도	판로확보	자재확보	합계
빈도	124	106	1	15	32	33	13	23	347
%	35.7	30.5	0.3	4.3	9.2	9.5	3.7	6.6	100.0

자료: 설문조사

주: 복수 응답 문항임



로는 서구(20.6%)의 순이다. 그 다음으로는 성서공단이 있는 달서구가 8.0%를 나타내고 있으며, 북구에 거주하는 137명 중에서 79명이 노원동에 거주함으로써, 전체 구성원중에서 33.2%가 노원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연결망 구성원들간의 접촉빈도를 살펴보면, '거의 매일' 접촉하는 비율이 44.3%로써,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주일에 2~3회 접촉하는 비율이 22.1%를 나타내고 있다.

연결망 구성원들과의 사업상 협조협력관계에서는 '경영조언'이 35.7%로써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하청·재하청관계'가 30.5%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기술지도', '기계·장비이용', '자재 확보', '판로 확보' 등의 순이다.

이상에서 기계금속산업은 다수의 부품을 가공조립하여 최종생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생산과정상의 분업관계의 형성과 이에 기초한 생산하청이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종 가공생산부문을 중·대기업이 장악하여, 부품 또는 반제품을 생산하는 소기업을 1차 하청거래를 통해 지배하며, 한편 중소기업은 보다 영세한 영세기업 또는 가내공업과 2차의 하청관계를 맺고 있다. 대구광역시의 기계금속산업의 경우 종업원 51~200인 규모인 중기업의 75.8%와 301인 이상인 대기업의 61.5%가 달서구와 달성군에 분포하고 있으며, 종업원 6~50인 규모의 소기업의 49.6%와 종업원 5인 이하인 영세기업의 86.1%가 북구에 집중되어 있다(대구광역시, 1997b). 따라서 대기업과 중기업은 달서구와 달성군, 소기업과 영세기업은 북구라는 공간적 입지패턴을 나타내고 있으며, 북구에서도 연구지역에 보다 영세한 규모의 영세기업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연구지역의 업체들은 달서구의 성서공단과 달성군의 달성공단에 입지한 모기업과 직접적인 하청관계, 또는 중기업 또는 소기업을 통한 다차원적인 하청관계의 제일 하층부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과정상에서 연구지역내에 밀집한 다른 영세기업과의 하청·재하청관계를 통해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다음은 연구지역내의 기계금속업종의 영세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합성수지를 판매하는 柳씨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필자 : 이 지역에 기계, 금속업종의 소규모 공장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요?

柳씨 : 아무래도 자재나 이렇게 원활하게 공급되고 또 전부다 상호 보완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뭐 할 일이 있으면은 잠깐 옆집에 가가지고 손좀봐가지고 또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서로 거리가 멀리 떨어졌으면은 그거 기계가 잠깐 고장났다고 해가지고 그거 기계 싹고 갈 수는 없잖아요. 거기 가면 금방금방 오고. 원자재 조달이나 이렇게 모든게 원활하니까 그런거죠. 그러니 뭉쳐있는기지.

柳씨는 기계, 금속업종들이 밀집해 있는 이유를 묻는 필자의 질문에 상호보완관계(상호하청관계)에 있으며, 비표준화된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가내공장들이 근거리내에 밀집해 있기 때문에 입지적 이점이 크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입지적인 이점은 사업체 경영자들의 사업상의 연결망 구성원들과의 협조협력관계에서 상호간의 하청·재하청관계가 주요한 협력관계로 나온 것과 일치하고 있다. 다음은 중소기업규모의 철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40대의 차씨와 필자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필자 : 공장 주변의 주민들과는 관계가 어떻습니까?

차씨 : 주변의 주민과는 얘기도 안한다. 골치가 아파서... 뭐 명절때면 공장주변의 주민들에게 집집마다 설탕 한푸대씩을 선물로 돌린다. (웬지 부끄러운 듯 웃는다)

필자 : 준주거지역으로 바뀐 후 지가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차씨 : 준주거지역으로 바뀐 후 지가가 많이 올랐지만 IMF이후 다시 내려가서 IMF이전보다 약 30%가 내려갔다. 지가는 내가 생각하기에 대동소이하다고 본다. 근방에 인력수급, 상호간에 하청등이 쉬워서 이 지역이 특히 영세업이 많다. 경기 좋을 때 진량으로 나가고 싶어도 통근버스, 물류비용, 기름값 등으로 보면 신경써야할 부분이 많아 이전을 못하고 있어. 돈만 되면 이전이야 해야지. 멀리 이전은 못하고 성서공단 정도. 원자재 구입은 전부다

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멀리갈 수는 없다. 공단의 경우에는 업체 서로간에 협력관계가 아쉽고 공단은 부지 규모가 너무 커서 우리 업체와는 맞지 않는다. 공단이 활성화 안되는 것은 주위에 다른 여러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며, 노원동에서 성서공단으로 간 업체들이 거의 부도가 났다. 자기돈으로 부지를 사면 문제는 없겠지만, 은행 돈 빌려서 공단에 입주한 사람들은 요즘 같은 시기엔 원금상환도 어렵다.

朴씨의 경우는 공장주변의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는 것으로 여겨지며, 주민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는 않지만, 명절 때면 설탕을 선물하는 것으로 보아 나름대로 주민들의 민원을 무마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입지문제에 있어서 기술있는 노동력의 공급이 수월하고, 영세한 업체들간의 상호하청이 쉽기 때문에 영세업의 경우 노원2가동이 매우 좋은 입지라고 말한다. 또한 성서공단과 같이 공단지역은 부지규모가 크기 때문에 재력이 없는 소규모 업체에게 맞지 않으며, 또한 성서공단이 아직까지 주변여건(부품·원자재 구매)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부적합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1993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이후에 지가와 임대료 수준이 많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 이후로 30%가 감소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6. 결론

본 연구의 사례지역은 대구광역시의 도심지역이라 할 수 있는 제3순환선내에 위치한 지역으로써, 기존의 공업단지인 제3공단에 인접하여 20년간 준공업지역으로 있다가 1993년에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지역이다. 본 연구지역에는 기계금속업종으로 대표되는 소규모 영세제조업체 및 관련 서비스업, 기존의 오래된 저층의 단독주택, 새롭게 들어선 다가구주택들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생활활동과 생활활동이 공존하는 전형적인 산업지역사회이다.

본 연구지역에는 주로 공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기계금속업종의 제조업체들이 집적되어 있으며, 종사자 규모, 매출액, 공장 소유 여부 등의 측면에서 대부분이 자영업적 성격이 강한 영세한 소규모 공장들으로써, 달서구와 달성군의 중·대기업들과 수직적인 하청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본 연구지역내에서는 영세업체들간에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하청관계를 통해서 존립하고 있다. 사업체 경영주의 상당수가 연구지역내에 생산과 생활을 겸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과반수 이상은 동일한 부지내에 주택과 공장을 겸하고 있다. 이전업체의 경우 대다수가 북구내에서의 이전으로써 국지적인 고착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체 연결망은 그 규모와 밀도의 측면에서 촘촘하게 짜여진 연결망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연결망 내부에서 사업을 매개로 정보교환이나 의사소통이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국지적인 사업체 경영주들과의 친목회, 상호회 가입여부가 사업체 연결망의 평균인지연수와 정적인 상관을 나타냄으로써 사업체 연결망과의 유대와 결함이 단순히 생산과정상의 하청·재하청관계뿐만 아니라, 생활과 사교의 측면에서도 상부상조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단순한 사업체의 집적지가 아닌 국지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산업지역사회의 기초가 되고 있는 영세제조업체 집적의 존립기반은 생산체계상의 네트워크 이점으로 집약된다. 생산체계상의 특성으로는 대규모 산업자본이나 상업자본이 아닌 중소생산자본이 생산 전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역내 업체간의 긴밀한 협력적-수평적 하청관계에 기초한 생산공정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이에 대한 보완장치로 사회적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생산체계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네트워크 이점에도 불구하고 도심부의 산업지역사회(industrial community)는 항상 지대 및 정책적 압력으로 제조업체 이전문제가 정책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향후의 도시계획에 있어서 도시내 공업의 일방적인 이전보다는 국지적으로 밀집된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생산체계상의 네트워크 이점과 창업보육센터로의 역할을 전제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註

- 1) 제3공단은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으며 공해(대기, 수질, 소음, 분진 등)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인해 「대구 도시기본계획」(1992)에 의해 2001년까지는 이전하는 산업체의 부지에 업무, 주거기능을 담당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 2) 준주거지역 지정기준은 ① 용도가 혼재하지만 주로 주거환경을 보호해야할 구역. ② 중심시가지 또는 역 주변이 상업지역에 접한 주택지로 상업지화가 예상되는 구역. ③ 주택지내를 통하는 주요간선도로 및 철도주변의 주택지. ④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접한 주택지로 어느 정도 용도의 혼재를 인정하는 구역. ⑤ 계획적 주택단지내의 상업시설용지(대구직할시, 1994, 도시계획편람)등이다.
- 3) 제11회 북구통계연보, 대구광역시 북구, 1997. 12월 발행(1996년 말 기준) ; 노원 1·2가동 자체 전산자료(1998년 4월 29일 기준).
- 4) 인터뷰 조사결과, 기계금속업체 경영주들은 “기계금속업종이 3공단에 밀집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그 3공단에는 노원2가동을 포함시킨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안경테업종의 한 경영주는 “안경테는 여기에서 반경 500미터 이내에 거의 80%가 밀집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동일업종 종사자와 이야기를 나눌 때 ‘3공단’이라는 말을 쓸 때는 정확한 의미에서의 노원3가2동의 3공단이라기 보다는 노원동 전체를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
- 5)李先生은 60세로써 칠곡에서 농사를 짓다가 농사일을 그만두고 현재의 노원2가동 132-4번지에 24년째 거주하고 있다.李先生은 1974년 3공단이 한창 활기를 있을 때 공장의 보일러를 시공하는 회사에 취직하여 일하다가 10년전부터 그 일을 그만두고 작은 식료품 상점을 경영하고 있다.
- 6)필자의 확인에 의하면 62평이다.
- 7)공장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는 이유가 공장들이 가깝게 밀집해 있어 상호간의 협력관계 등 편리한 점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8)대구광역시의 영세사업체 종사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전체 종사자수는 1995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나, 5인 미만의 영세사업체 종사자수는 26만명(37.0%)으로 1993년(32.6%) 이후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반면에 5인 이상의 사업체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대구광역시내의 종사자 1인 이상 총사업체 수는 1,113개이며, 총종사자수는 702,302명이다(매일신문 1998년 9월22일자).
- 9)사업체의 매출액은 노원1·2가동 자체 전산자료(1997년 12월 31일 기준)를 이용하였으나, 10인 이상의 경우에는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여서 여기서는 10인 미만의 사업체만 제시한다.

- 10) 영남일보, 1997년 11월 4일자 참조.
- 11) 영남일보, 97년 2월 12일자, 2월 20일자, 11월 4일자 참조.
- 12) 이성근 영남대 교수(지역개발학과)는 1998년 6월 13일 제4회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도심공단 재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공동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영남일보, 1998년 6월 15일자).
- 13) 대구지역 기계·금속공업의 실태조사에서 공장이전 및 확장시 애로사항은 자금부족이 가장 부담되는 사항으로서 규모가 작을수록 그 비중이 높으며, 응답한 영세기업의 88.9%, 소기업의 78.4%가 지적하였으며, 많은 업체들이 교통문제를 지적하였는데, 지역이나 업종에 관계없이 이는 물류비 증가, 종업원들의 출퇴근 불편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자금문제와 같이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부분의 업체들이 공장이전을 기피할 것으로 보인다(대구광역시, 1997b).
- 14) 사업 연결망의 연결망 추출문항은 “현재 노원동에서 함께 사업체를 경영하시면서 서로간에 협력하거나 또는 친밀하게 지내시는 타사업체 경영자 분들의 성함(또는 성)을 5명 이내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다.

文獻

- 강우원, 1995, 서울 도심부 제조업의 입지특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용창, 1997, 서울시 토지이용에서 위치이용의 지역적 특성과 도심부 소규모사업장의 존재양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용학, 1987, 사회연결망 분석의 이론틀: 구조와 행위의 연결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21, 31-68.
- 노원1·2가동, 1998년 4월 29일, 노원1·2가동 자체 전산자료.
- 대구광역시, 1997a, 2016년 대구도시기본계획.
- 대구광역시, 1997b, 대구지역 기계·금속공업의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 대구광역시 북구, 1997a, 1996년 기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보고서.
- 대구광역시 북구, 1997b, 제11회 북구통계연보.
- 대구직할시, 1994, 도시계획편람.
- 문태헌, 1988, 대도시 주·공혼합지역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상민, 1998, 주공혼계 지역주민의 사회적 연결망

대도시 주공혼재지역의 영세제조업의 존립기반: 대구시 노원동을 사례로

- 과 공간성,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성진, 1995,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본 대구지역 경제문제”, 대구사회연구소 편, 대구·경북사회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 이정욱, 1996, **소규모 제조기업 집적지역의 형성 과정과 지역적 연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을 사례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關滿博, 1990, **地域産業の開発プロジェクト-住工混地域と中小零細工場**, 新評論, 東京.
- 竹内淳彦, 1993, **技術集團と産業地域社會-大都市の場合**, 大明堂, 東京.
- Andrews, Howard F., 1986, The Effects of Neighbourhood Social Mix on Adolescents' Social Networks and Recreational Activities, *UrbanStudies*, 23, 501-517.
- Banck, Geert A., Network analysis and Social theory: Some remarks, In Boissevain, Jeremy & J. Clyde Mitchell(eds.), 1973, *Network Analysis: Studies in Human Interaction*, Mouton & Co, Hague, 37-43.
- Beshers, J. M. & E. O. Laumann, 1967, Social distance: a network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Review*, 32, 225-236.
- Granovetter, 1985,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AmericanJournalofSociology*, 91, 481-510.

## Subsistence Mode of Small Manufacturing Enterprises at the Industrial Community in Taegu City.

Chul Woo Lee\*, Sahng min Park\*\*

### Summary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inner-city industrial community and to analyse the subsistence mode of small manufacturing enterprises in the industrial community in Taegu Metropolitan area.

The case study area, Nowon 1. 2-ga dong, is the typical inner city industrial community, adjacent to old industrial complex, which was recently transformed from semi-industrial to semi-residential zoning district. Now there are many old one story housing, newly constructed multistories housing and many small factories of metal and machinery products. The conflicts of between residents and small business owners are not serious but latent.

The subsistence mode of small manufacturing enterprises in this area is characterized as the network production system. The main attributes of this mode are local integration, horizontal subcontracting and strong industrial linkages in production processes and transactions. These transactions are mainly made by face-to-face

contacts. The small business owners' local social networks are seen as series of units which are interconnected through various types of social and business relations. They exchange business information as using social networks. In addition, the majority of them join local social clubs with their local business counterparts. Finally, the locational advantages of inner-city industrial community are production network, different industrial linkages and characteristic industrial milieu such as social solidarity, informal labor market and incubator effects. But these advantages are being challenged from the contradiction between capital and landed property and the urban gentrification policy. Accordingly, there should be positive redevelopment policy considering the subsistence mode of small business in these areas.

**Key words** : industrial community, industrial agglomeration, subsistence mode of small business, industrial milieu, network production system, horizontal subcontracting

---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Teacher, Anyang foreign language highschool.